한국 문집 속의 불교 관련 자료 전산화에 대하여 - 자료의 개관과 예시를 중심으로 -

임 종 욱*

목 차

1. 시작하면서
2. 사대부 문집 속의 불교 관련 자료
3. 문집 소재 불교 시문의 내용-사찰제영시를 중심으로-
4. 불교자료의 전산화 문제
5. 불교 자료 전산화의 효과

요 약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은 형식적으로는 불교를 배척하는 입장에 섰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교에 의지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학문적인 차원에서건 신앙의 문제에서건 사대부와 불교는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본고는 그런 관계성을 사대부들이 남긴 문집 속에 수록된 시문(詩文) 작품들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수용하고, 유불교섭사의 일환으로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선상에서 쓰여졌다. 특히 사대부 문인들의 문집에 실려 있는 불교 관련 시문들의 전반적인 현황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와 그 과제를 풀어나갈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이런 자료를 누구나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궁극

*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 객원연구원

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미래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타진해 보았다.

필자와 한보광 스님에 의해 작업의 1차 성과로 나온 『한국문집소재 불교 관련 시문 자료집』(전5권)을 발판으로 삼아 보다 조직적인 구체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노력이 뒤따르기를 바란다.

1. 시작하면서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창시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어언 1500여 년이 흘렀다. 위로는 진리(眞理)를 찾고 아래로는 중생(衆生)을 교화하는 큰 서원을 품은 불교는 만민평등(萬民平等)을 내세운 포용의 종교였다. 진리 앞에서 모든 이들은 차별이 없었고, 모든 생명체는 부처가 될 씨앗으로서 존중받고 존경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불교는 갈파했다. 그런 큰 이념이 오늘날 불교가 분쟁보다는 화합을, 갈등보다는 조화를 실현할 가장 참된 종교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2500년을 헤아리는 불교의 역사에서 때로 불교는 질시와 오해 때문에 수난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법난(法難)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불교는 항상 현재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었다. 그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이 진실로 어둠에 가렸던 적은 없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차원의 무지와 무명(無明)이 횡행하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등불은 더욱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불교는 불자(佛子)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폄훼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다. 진리가 외부에 있는 허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불꽃이 언제 누구의 가슴속에서 발화할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불교는 항상 남과 더불어 살면서 남과 나의 아름다운 동행을 희망하고, 그런 조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문집 속의 불교 관련 자료 전산화에 대하여(임종욱)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 문화의 가장 빛나는 구역을 밝힌 불교가 이 땅에 남긴 유산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땅 어디를 가도 불교의 손길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높은 산봉우리 이름에서 작은 실개천 이름까지, 골골마다 길목마다 세워져 있는 미륵상이며 불탑(佛塔)들은 곧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도량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발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산사(山寺)의 열린 공간은 자비행(慈悲行)을 실천하고 공존(共存)의 의미를 잘 깨달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처럼 우리 문화는 토착 신앙과 유교(儒敎), 그리고 불교가 솥의 세 발처럼 편안하게 세 축을 받치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때 유교는 불교를 이단(異端)이라 해서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매몰차게 배척한 적이 있었다. 특히 송나라 때 완성된 성리학(性理學)은 고려 말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 배타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조선(朝鮮) 왕조가 들어서자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불교를 억압했고, 그 앞장을 섰던 사람이 '선비'라는 말로 대표되는 사대부(士大夫)들이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던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계율을 버리면서까지 승병(僧兵)으로 나서자 잠시 우호적인 자세를 보인 적도 있지만, 조선조 5백년은 어찌 보더라도 말법(末法)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남기고 있는 문집을 읽노라면 끝없이 등장하는 불교와 관련된 시문(詩文)들은 사대부 문인들의 이면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정서와 이념을 짐작하게 만든다. 성리학이 다 풀지 못하는 궁극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그들의 교리는 제공하지 못했고, 이런 한계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불교의 세계로 인도했던 것이다. 그밖에도 방외(方外)의 지식인으로서 승려들이 보여준 높고 깊은 사유의 세계는 그들을 매혹시켰고,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찾으면 으레 만나게 되는 비경(秘境) 속의 산사(山寺)는 지상에 현현한 이상향을 만나는 기쁨과 안도를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대부 문인들은 때로는 간곡하게 때로는 은근하게 불교에 귀의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서두가 좀 길어졌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왜 불교와 유고가 공존(共存)해

야 했으며,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강령을 외면하면서까지 불교에 관심을 두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유와 경도 때문에 수많은 불교 관련 시문들이 사대부들의 문집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헤아리게 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사대부 문집 속에 실린 불교 자료들의 현황과 이를 전산화하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양해를 구할 일은 이런 성격의 논문은 사실 개괄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야겠다. 이미 발간된 자료집[1]을 미리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전14권)에 실린 문헌들은 어떤 식으로든 전산화하는 과정에 있거나 완료된 데 비해 사대부 문집 속에 실린 자료들은 이제 척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지만,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2. 사대부 문집 속의 불교 관련 자료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사대부들이 남긴 문헌들은 현재 그 전모를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 판각되어 출간된 문헌도 많지만, 수고본(手稿本)이나 필사본(筆寫本)으로 전하는 자료도 상당한 분량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우리의 국고(國故)를 제대로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개 유일본이 많으니 자칫 때를 놓쳐 귀중한 문화유산을 상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사대부들의 문집 속에는 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불교와 관련된 자료

---

1) 한태식・임종욱, 『한국문집소재 불교관련시문 자료집』 전5권(서울: 이회문화사, 2007.11.2).

들이 수록되어 있다. 일부 문인들의 경우는 관련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이는 물론 문인 개인의 성향이나 문집이 편찬되는 여건 때문에 아예 집필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누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문집 속에서 불교 관련 시문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그 자료가 문집 곳곳에 흩어져 있거나 글 속에 숨어 있어 차근차근 문집을 살펴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다. 또 깊이 있는 사유의 결과보다는 가벼운 여정(旅情)을 담거나 감상 정도에 머문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집 속의 글들이 대개 철학적인 논의보다는(성리학과 관련된 것은 있지만) 문예적 요소가 많은 글이 중심을 이루다보니 반드시 이것이 불교를 경시한 단서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생활 속에 불교가 존재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인과 불교 사이의 불가분의 친연성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또 불교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이론적 대결을 추구한 글도 나온다. 이런 글이 사실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양도 적고 다소 형식적이다. 으레 하는 군소리 한 마디 정도에서 벗어나 좀 더 진지하게 유불간의 교리 논쟁이 담긴 글이 많이 발견되기를 기대한다.

문집 속의 관련 자료는 형식으로 보면 시와 산문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으로 보면 작가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을 토로하고 묘사한 문예성이 강한 작품이 주류를 차지하지만 왕실이나 국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또는 승려나 사찰로부터 부탁을 받아 쓴 의례성(儀禮性)이 짙은 글도 있다. 특히 이런 글들은 국가적으로 불교 행사가 벌어졌던 고려시대 문인들의 문집 속에 풍부하게 전한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그런 글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숫자나 양에 있어서 고려시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현저하게 줄어든다. 왕조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사대부 문집 속에 담긴 불교 관련 자료는, 성격으로 볼 때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집에서 약간 차이를 보인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국교였던 만큼 자료 자체도 풍부하지만 내용도 풍성하다. 불교 의식과 관련되어 쓰여졌던 글도 상당수 실려 있는데, 모연문(募緣

文)이나 중창기(重創記), 비명(碑銘), 유람기(遊覽記) 등 자신의 불교 신앙을 생생하게 드러낸 산문(散文)이 적지 않다.(이 글은 요지인 만큼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지는 않겠다.)

조선시대 문집은 주로 한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개 승려들과의 교유나 산사 유람이 원인이 되어 쓰여졌거나, 산문은 명산 유람기 속에 불교와 관련된 문장이 주류를 이룬다. 허균이나 김정희 등과 같이 불교에 깊이 있게 접근한 문인들의 글에서는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자료의 성격은 일상사의 한 부분으로 스며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글들은 진지하지는 않아도 진솔한 생각을 담은 만큼 그 가치를 굳이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문집 소재 불교 시문의 내용 -사찰제영시를 중심으로-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사대부 문집에 실려 있는 불교 관련 시문들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하다. 방대한 문헌 속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격이나 특징들을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대략이라도 우선 파악할 필요는 분명 있다. 그래서 따로 장을 마련하여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사찰제영시는 사대부들의 불교 시문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한다. 그만큼 사찰과 사대부들은 불리(不離)의 관련을 갖고 있다는 방증도 될 것이다. 천 수백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찰제영 자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고 요긴한 자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 자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수요자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문화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고 재구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접근이든 그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재가 된 많은 사찰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작품을 남긴 사찰의 예를 들어 시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시는 건봉사(乾鳳寺)를 노래한 작품이다. 제목은 〈건봉사를 찾아〔訪乾鳳寺〕〉이다. 건봉사는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거진읍(巨津邑) 냉천리(冷泉里) 금강산에 있는 사찰이다. 520년(법흥왕 7) 아도(阿道)가 창건하여 원각사(成覺寺)라 하고, 758년(경덕왕 17) 발징(發徵)이 중건, 한국 최초의 만일회인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베풀었다. 937년 도선(道詵)이 중수하여 서봉사(西鳳寺)라 개칭했으며, 다시 1358년(공민왕 7) 나옹(懶翁)이 중수하여 건봉사로 고쳤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1464년(세조 10) 세조가 학열(學悅)에게 명하여 어실각(御室閣)을 짓게 하고 역대 임금의 원당(願堂)으로 삼았으며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사리와 치아가 안치되어 있다.

古道通行細　옛 길이 가늘게 이어졌는데
諸寮面勢分　여러 집들이 모양새도 분명하구나.
長松纏石壁　큰 소나무는 돌 벽을 감돌고 있고
複閣半寒雲　겹친 누각이 반은 구름에 잠겼네.
水碓舂相應　물방아 소리가 동동 서로 울리니
霜林靜亦聞　서리 내린 숲이 고요해 또한 들리네.
不須談法偈　굳이 법게를 말하지 않더라도
心已遠人紛　마음은 벌써 시끄러운 세상과 멀어졌네.

이 작품은 최창대(崔昌大, 1669-1720)의 『곤륜집(昆侖集)』 권2에 실려 있다. 최창대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고, 자는 효백(孝伯)이며, 호는 곤륜(昆侖)이다. 1694년 별시문과에 급제했다. 제자백가와 경서(經書)에 밝고, 문장에 능했으며 글씨도 잘 썼다. 저술도 많았지만 대부분 없어지고, 『곤륜집(昆侖集)』만 전한다.

건봉사를 향해가는 노정과 길가에서는 보고듣는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시의 핵심은 마지막 두 구에서 찾을 수 있다. 절을 향해 오는 그 길을 바로 정화(淨化)의 과정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굳이 깨달음을 노래로 읊지 않더라도 마음을 어느 새 속세와 멀어졌다고 시인은 주저없이 토로한다. 구업(舊業)을 씻어내는 도량으로서의 사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

겠다.

다음은 금산사(金山寺)를 노래한 작품이다. 제목은 〈금산사에서〔金山寺〕〉이다. 금산사는 전북 김제시 무악산(毋岳山)에 있는 사찰로, 백제 법왕 2년(600) 법왕이 창건되었다. 과거불인 가섭불(迦葉佛) 때의 옛 터를 중흥한 것이라고 한다. 신라 경덕왕 21년(762) 신라의 진표(眞表)가 중창을 시작하여 혜공왕 2년(766)에 완공했다. 이때 진표는 미륵장육상(彌勒丈六像)을 조성하여 주존불로 삼았고 금당의 남쪽 벽에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자신에게 계법을 주는 모습을 그렸다. 그 뒤 후백제 견훤의 도움으로 부분적으로 중수했는데, 견훤이 아들 신검(神劍)에 의해서 이 절에 갇혔다가 탈출하여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기도 했다.

三層古殿碧雲齊　삼 층의 오랜 불전은 푸른 구름과 나란히 했고
遠客呼僧問轉迷　먼 나그네 스님을 불러 미망에 대해 물어보네.
春滿中臺明月滿　봄 가득한 중대에 밝은 달빛도 그득하니
梨花如雪子規啼　배꽃은 눈처럼 떨어지고 자규새는 지저귄다.

작품은 이순인(李純仁, 1543-1592)의 『고담일고(孤潭逸稿)』 권1에 실려 있다. 이순인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백생(伯生) 또는 백옥(伯玉)이고, 호는 고담(孤潭)이며, 본관은 전의(全義)로, 서울 출생이다. 1564년 사마시에 합격했고, 1572년 별시문과에 급제했다. 1586년 사간이 되었고, 형조참의 등을 지냈다. 문장에 뛰어나 이산해(李山海) 등과 함께 '8문장'으로 불렸다. 문집에 『고담일고』가 있다.

시인이 본 삼층으로 된 전각은 미륵전(彌勒殿)이다. 진표율사가 지었다고 하는데, 시에서의 표현처럼 폭이 좁고 층은 높아 구름과 닿을 듯 하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먼 길을 찾아온 시인의 마음은 역시 번뇌를 어떻게 하면 털어낼까이다. 그러나 그 답은 스님의 대답에 있지 않다. 봄빛과 달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선경(仙境)과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고 날리고 자규새가 지저귀는 그 속에 이미 번뇌와 미망은 머물 곳이 없는 것이다. 배꽃의 흰 빛깔과 자규새의 구슬픈 소리가 공감각적인 운치를 불러일으킨다.

다음으로 낙산사(洛山寺)를 노래한 작품을 본다. 제목은 〈낙산사에서 일출을 보면서〔洛山寺觀日出〕〉이다. 낙산사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降峴面) 전진리(前津里) 낙산에 있는 사찰이다. 해변에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갖춘 사찰로, 한국 3대 관음기도도량 중 하나다. 671년 의상(義湘)이 창건했고, 고려 초기에 산불로 소실되었지만 관음보살과 정취보살을 모신 불전만은 화재를 면했다. 그 뒤 몽골의 침략으로 전소되었다. 전소된 뒤 몇 차례 중창·중건되었다가 한국전쟁 때 다시 전소된 것을 1953년 일부 복구했고, 1976년 원철(成徹)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얼마 전 큰 화재를 만나 사찰 전체가 소실하다시피 했는데, 현재 한창 복원 불사가 진행 중인 사찰이다.

百神奔走捧朱曦　온갖 신이 분주하게 해〔太陽〕를 받드는데
鷄唱扶桑第幾枝　닭은 부상의 어느 가지에서 노래하는가.
海蕩波飜奔競世　바다 들끓고 파도 거세니 다투는 세상 꼴이고
天開雲散太平時　하늘 열리고 구름 흩어지니 태평한 시대로다.
元無私照帝王象　원래 사사로운 비침이 없으니 제왕의 형상이고
自有通明奴隷知　스스로 트여 밝으니 노예의 지혜일세.
坐久梨花亭下席　오랫동안 이화정에 앉았다 내려오니
指端千歲可推知　손가락 끝 천년 세월을 미루어 알겠구나.

이 작품은 박윤묵(朴允默, 1771-1849)의 『존재집(存齋集)』 권4에 실려 있다. 박윤묵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사집(士執)이며, 호는 존재(存齋)다. 정조와 영의정 김조순(金祖淳)의 신임을 받았고, 1835년 평신진첨절제사(平薪鎭僉節制使)로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 시문(詩文)에도 뛰어났고, 서예는 왕희지(王羲之)와 조맹부(趙孟頫)의 필법을 이어받았다. 문집에 『존재집』이 있다.

낙산사하면 으레 떠오르는 풍경이 동해의 일출이다. 이화정은 지금의 의상대 근처에 있던 정자인 듯하다. 낙산사 관련 시에 자주 등장하는 정자다. 이 작품은 낙산사의 풍광이나 느낌보다는 일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수면으로 막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어지러운 세상 모습으로 해가 막 떠오르는 장면을 담았고,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변화

에서 태평성대의 한 단락을 연상하고 있다. 햇빛의 공덕과 효용을 노래하면서 자연이 주는 위대한 형상을 시화하고 있다.

다음은 봉은사(奉恩寺)를 노래한 작품이다. 제목은 〈봉은사에서〔奉恩寺〕〉이다. 봉은사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三成洞) 수도산(修道山)에 있는 사찰이다. 794년(원성왕 10) 연회국사(緣會國師)가 창건하여 견성사(見性寺)라 했으며, 그 후 1498년(연산군 4)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성종 선릉(宣陵)을 위하여 능의 동편에 있던 이 절을 크게 중창하여 절 이름을 봉은사라고 개칭했다. 1562년(명종 17) 보우(普雨)가 절을 현 위치로 이전하여 중창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병화로 소실되었으나 1637년(인조 15) 경림(敬林)과 벽암(碧巖)이 모연(募緣)하여 중건했다. 1665년(현종 6)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숙종 때 중건되었다.

天開巨刹倚長江　하늘이 큰 사찰을 열어 장강에 기댔으니
棟宇玲瓏世少雙　기둥은 영롱하여 세상이 짝할 게 없네.
白蠟瀹成壇上燭　백랍을 녹여 이룬 촛불은 단에서 빛나고
紅羅翦作榻前幢　붉은 비단 잘라 만든 깃발은 탑 앞에서 날리네.
筒泉引遠源無渴　대나무 통 따라 흐르는 샘물은 마를 날이 없고
簷鐸風微響自撞　처마 끝 풍경은 가는 바람에 절로 울려 퍼지네.
坐久居僧添茗椀　망연히 앉았더니 스님이 차를 따르는데
夕陽松影落禪牕　지는 해에 솔 그림자가 선창에 떨어진다.

이 작품은 『허백당집(虛白堂集)』 보집(補集) 권4에 실려 있다. 성현(成俔, 1439-1504)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경숙(磬叔)이며, 호는 용재(慵齋) 또는 허백당(虛白堂)이고, 시호는 문대(文戴)다. 1462년 식년문과에 ·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급제했다. 글씨를 잘 썼고, 『용재총화(慵齋叢話)』는 조선 전기의 정치와 사회 · 문화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다. 저서에 『허백당집』과 『풍아록(風雅錄)』 · 『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 『주의패설(奏議稗說)』 · 『태평통재(太平通載)』 등이 있다.

사찰의 한적한 모습과 그 안에서 망기(忘機)한 시인의 심경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한강을 눈앞에 두고 당당하게 자리한 형세와 불당(佛堂)의 웅

장한 거취에 시인의 관심은 모아진다. 법단(法壇)은 촛불 불빛 아래 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오색으로 빛나는 당기(幢旗)는 화려한 움직임으로 대조를 이룬다. 대나무 통을 따라 떨어지는 샘물을 마시면서 시인은 속기(俗氣)를 씻어내고, 하늘을 울려퍼지는 풍경 소리를 들으며 초월을 꿈꾼다. 스님과 마주앉아 마시는 차는 이미 해찰의 경지에 든 자신을 더욱 자연 속으로 끌어들인다. 도성(都城)에 가까워 번뇌도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그런 거리감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인의 기쁨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작품은 부석사(浮石寺)를 노래한 시다. 제목은 〈부석사에서〔浮石寺〕〉에서이다. 부석사는 경북 영주시 봉황산(鳳凰山)에 있는 사찰이다, 신라 문무왕 원년(661) 의상이 당(唐)나라에 유학하러 갔다가 양주(揚州) 아문(衙門)에 묵게 되었는데, 한 신도의 딸인 선묘(善妙)가 결혼할 것을 요청하자 의상은 선묘를 감화시켜 깨달음을 얻게 했다. 선묘는 의상이 귀국할 때 용이 되어 줄곧 의상을 호위했는데, 부석사 자리에 있던 도적을 몰아내고 절을 세울 수 있게 도왔다는 설화가 있다. 문무왕 16년(676) 2월 의상이 문무왕의 명령으로 창건. 의상은 이 절을 중심으로 화엄을 널리 설법했으므로 의상을 부석존자(浮石尊者)라고 하며, 이 절은 화엄 십찰(華嚴十刹) 가운데 중심 도량이었다. 그 뒤 의상의 제자인 신림(神琳)이 머물렀고, 신라 말 대표적인 선사들 가운데, 원성왕 15년(799) 적인(寂忍) 혜철(惠哲), 헌덕왕 5년(813)에 낭혜(朗慧) 무염(無染), 그리고 문성왕 2년(840)에 징효(澄曉) 절중(折中)이 이 절에서 『화엄경』을 배웠다고 한다.

浮石千年寺　부석은 천 년의 고찰
平臨鶴駕山　학가산에 길게 누웠네.
樓居雲雨上　누대는 비구름 위에 있고
鐘動斗牛間　범종은 두우 사이에서 울린다.
刳木分河逈　나무를 잘라 멀리 강물을 가르고
開巖種玉閒　바위를 열어 느긋하게 옥을 심었네.
非關貪佛宿　부처 경지를 탐해 묵는 것 아니니
瀟灑却忘還　시원한 기운에 돌아갈 일 잊었네.

작품은 『무릉잡고(武陵雜稿)』 권3에 실려 있다. 작자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상주(尙州)고, 자는 경유(景遊)며, 호는 신재(愼齋) 또는 손옹(巽翁)·남고(南皐) 등을 썼고, 시호는 문민(文敏)이다. 1543년 주자(朱子)의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를 본받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紹修書院)을 세워 서원의 시초를 이루었다. 저서에 『무릉잡고』가 있고, 편서로는 『죽계지(竹溪誌)』와 『동국명신언행록(東國名臣言行錄)』·『심도이훈(心圖彝訓)』 등이 있다.

의상대사와 선묘와의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어 있는 부석사는 야트막한 산에 자리했으면서도 기품이 있는 사찰이다. 산과 들, 강과 언덕을 두루 감싸고 있는 경관이 욕망보다는 절제와 금욕을 깨우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뭐든 욕심을 낸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발심하여 그 마음대로 움직이면 희망은 결국 실현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면 꿈이란 것도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는 바로 그런 깨달음을 담고 있다. 평범하게 이어지는 사찰의 외모지만 거기서 시인은 참다운 길을 알게 되었다. 소쇄(瀟灑)하게 열린 마음, 그곳에 진정한 부처의 경지가 있음을 시인은 우리에게 귓속말로 알려주고 있다.

다음은 송광사(松廣寺)를 노래한 작품이다. 제목은 〈송광사에서〔松廣寺〕〉이다. 송광사는 전남 순천시 송광면(松廣面) 조계산(曹溪山)에 있는 사찰이다. 신라 말기 체징(體澄)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당시에는 길상사(吉祥寺)라 했고 승려 30-40인 정도의 소규모 사찰이었다. 그 후 고려 인종(仁宗) 때 석조(釋照)가 중창하려는 원(願)을 세우고 역부(役夫)를 소집하여 임목(林木)을 준비했는데, 완공하지 못하고 죽었다. 50여년 뒤 보조국사(普照國師)는 거의 폐허화되었던 길상사에 지리산 상무주암(上無住庵)으로부터 수행결사(修行結社)인 정혜사(定慧寺)를 옮겨옴으로써 대규모의 수도 도량을 마련했다.

丹靑殿宇鬱岧嶢　단청으로 꾸민 불전이 우뚝하게 둘렀는데
煙火當年未盡燒　전쟁의 불길 그때에도 다 타지 않았구나.
獨臥上房眠不得　홀로 상방에 누워 잠들지 못하노니

數聲淸磬動寒宵　몇 가닥 맑은 풍경소리가 찬 밤을 울린다.

작품은『휴옹집(休翁集)』권1에 실려 있다. 심광세(沈光世, 1577-1624)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덕현(德顯)이며, 호는 휴옹(休翁)이다. 무설(巫說)을 믿는 광해군을 간하다가 사직했다. 1613년 계축옥사로 고성(固城)에 유배, 인조반정 때 다시 교리가 되고 응교(應敎)를 거쳐 사인(舍人)이 되었다. 문집에『휴옹집』이 있다.

임진왜란 직후에 사찰을 찾은 모양이다. 송광사는 이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화마의 피해를 입었지만 대중과 스님들의 울력과 발원으로 지금의 대가람이 되었다. 시인이 늦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은 단지 풍경 소리가 귀에 쟁쟁했던 탓은 아닐 것이다. 속세의 환란이 사찰까지도 불태워버린 그 참화의 여파에 가슴이 아니고, 제대로 세속을 이끌지 못해 비극을 빚어낸 사대부의 책임감 따위가 그를 더욱 불면으로 밤으로 이끌었을 듯하다. 시인의 심경을 이제 한 편 시만으로 반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에 거짓이 많았는데, 문학마저 가식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너무나 뒤끝이 개운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신륵사(神勒寺)에 관한 시를 보자. 제목은 〈신륵사에서〔神勒寺〕〉이다. 신륵사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봉미산(鳳尾山)에 있는 사찰이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元曉)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벽돌로 쌓아올린 탑이 있어, 고려 때부터 '벽절〔甓寺〕'이라고 불린다. 이 탑은 현전하는 고려시대 유일의 전탑으로서, 보물 226호로 지정되었다.

淺山如笑大江含　얕은 산이 웃는 듯 큰 강을 머금었으니
窈窕當心有佛龕　그윽하게 담은 마음이 불감 안에 있구나.
新倣惠公金骨相　새로 혜공을 본뜨니 금빛의 골상이고
舊留詞伯石鍾鑱　오래 전 사백이 머물렀으니 석종에 새겼구나.
峨冠儼笏排蒼壁　우뚝한 모자 엄연한 홀은 푸른 벽에 걸어두었고
濯錦挼藍俯碧潭　씻은 비단 짙은 남색은 푸른 연못을 내려다보네.
最是東臺饒勝賞　동대에서 절경을 즐기는 것이 최고려니

春風倚棹興難堪　봄바람에 배 띄우니 그 흥을 견딜 수 없구나.

작품은『동토집(童土集)』권1에 실려 있다. 윤순거(尹舜擧, 1596-1668)는 조선 중기의 지사(志土)로,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노직(魯直)이며, 호는 동토(童土)가. 1633년 사마시에 합격했지만 문과에는 실패했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고, 연산(連山) 구산서원(龜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문집에『동토집』, 저서에『노릉지(魯陵志)』, 글씨에「심원사취운당대사비(深源寺翠雲堂大師碑)」가 있다.

한강 자락에 바로 붙어 지어진 신륵사는 옛날부터 강원도에서 물건을 싣고 한강을 질러 내려오던 상선(商船)들을 첫머리에서 반기는 사찰로 유명했다. 뱃사공들도 이 절의 모전탑이 멀리 보이면 이제 목적지에 닿은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공덕이 많은 절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사찰 앞을 흐르는 한강은 수심이며 흐름이 완만해 배를 띄우고 행락을 즐기기 딱 좋은 곳이다. 강가 바위에 지어진 강월헌(江月軒)에서 바라본 풍광은 눈을 놀라게 할 정도의 절경은 아니지만,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적당하다. 이 시도 그런 시인의 경험이 녹아 있다.

다음은 쌍계사(雙溪寺)를 노래한 작품이다. 제목은〈쌍계사에서〔雙溪寺〕〉이다. 쌍계사는 경남 하동군 지리산 남쪽에 있는 사찰로, 신라 성덕왕 22년(723) 의상(義湘)의 제자인 삼법(三法)이 창건했다. 삼법은 당(唐)나라에서 귀국하기 전에 '육조 혜능(慧能) 정상(頂相)을 모셔다가 삼신산(三神山)의 눈 쌓인 계곡 위 꽃이 피는 곳에 봉안하라'는 꿈을 꾸고 혜능의 머리를 취한 뒤 귀국했다. 그 뒤 지리산에 이르러 지금의 쌍계사 금당 자리에 혜능의 머리를 평장한 뒤 절을 짓고 옥천사(玉泉寺)라고 했다. 그 뒤 흥덕왕 5년(830)에 진감국사 혜소(慧昭)가 중국에서 차의 종자를 가져와 절 주위에 심고 대가람으로 중창했으며, 정강왕 원년(886)에 쌍계사라고 했다.

强策玄黃馬　검고 누런 말에 채찍질을 하며
行尋峽路長　골짜기에 난 긴 길을 찾아 가노라.
菊花含白露　국화꽃은 흰 이슬을 머금었고

楓葉得紅霜　단풍잎은 붉은 서리에 젖었네.
佛殿淸鍾響　불전에는 종소리 울림이 맑고
禪窓濾月光　선창에는 달빛이 밝게 비친다.
平生所畜眼　평생을 두고 썼던 눈으로
看此雪堆莊　이런 장엄한 눈덩이를 보게 되네.

작품은『백곡집』권3에 실려 있다.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조선 중기의 시인으로,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자공(子公)이며, 호는 백곡(栢谷) 또는 귀석산인(龜石山人)이다. 1662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화적(火賊)에게 살해되었다. 당시 시명(詩名)이 있었다. 저서에『백곡집』과『종남총지(終南叢志)』등이 있다.

가을날 찾아온 절간에는 노란 국화와 울긋불긋 단풍들이 어우러져 흥취를 돋군다. 맑은 범종 소리며 창가에 어린 달빛이 속세에서 지친 몸을 쉬기에 그만이다. 온갖 궂은 일을 보며 피로에 지쳤던 눈〔眼〕도 오랜만에 누처럼 희고 깨끗한 형상을 보며 묵은 때를 씻어낸다. 먼 길을 힘겹게 왔던 인내가 큰 보람으로 맺어지는 것을 시인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월정사(月精寺)다. 제목은 〈오대산 월정사에서〔五臺山月精寺〕〉다. 월정사는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五臺山)에 있는 사찰이다. 신라 선덕여왕 12년(634) 자장(慈藏)이 당(唐)나라 오대산의 문수보살석상(文殊菩薩石像) 앞에서 7일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끝에 한 늙은 승려가 나타나 부처의 가사와 발우, 사리를 전해주면서 "신라의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고 있는 곳이니, 반드시 찾아가 보라."고 했는데, 오대산 태화지(太和池)에 살고 있던 용이 나타나 이 노인이 문수보살임을 알려 주었다. 자장은 귀국 즉시 오대산에 와서 풀로 만든 집을 지었는데, 이것이 월정사였다는 설화가 전한다.

名山能使旅懷開　명산은 능히 나그네 마음을 열어주니
恨未攀窮最上臺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지 못함이 한스럽네.
佛刹當年羅代刱　이 사찰은 그 옛날 신라 때 창건되었으니
經文幾種雪山來　경문은 몇 가지나 설산에서 왔을까?

巖楓鋪得高低錦　바위 틈 단풍은 아래위로 비단을 깐 듯하고
層瀑噴成上下雷　높은 폭포수는 떨어지며 사방에 우레 소릴세.
三百里來無此勝　삼백 리 안에 이런 절경이 없으니
臨歸那可不遲回　돌아갈 때 어찌 걸음이 더뎌지지 않으리오.

작품은『내재집(耐齋集)』권1에 실려 있다. 홍태유(洪泰猷, 1672-1715)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백형(伯亨)이고, 호는 내재(耐齋)며, 본관은 남양이다. 문집에『내재집』이 있다.

태백산맥의 주봉 가운데 하나인 오대산에는 월정사를 비롯하여 상원사(上元寺)와 적멸보궁(寂滅寶宮) 등 유서 깊은 대찰들이 산줄기를 타고 이어져 있어 보기 드문 명승지로 이름이 높다. 게다가 사찰로 가는 길목마다 명승지가 연이어지고 가을 단풍마저 유람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천 년 고찰이 지닌 장엄함과 자연이 주는 매력을 함께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을 이 시는 그대로 전해준다. 고산준령이 이어지는 태백산맥에서 사방 3백 리 안에 이만한 절경이 없다고 자신하는 시인의 한 마디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

다음은 청평사(淸平寺)를 노래한 작품이다. 제목은 〈청평사에서〔淸平寺〕〉이다. 청평사는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청평리에 있는 사찰. 973년(광종 24) 창건되어 백암선원(白岩禪院)이라 했다. 1068년(문종 22) 이의(李顗)가 중건해서 보현암이라 불렀다. 1089년 이자현(李資玄)이 중건하면서 청평사로 고쳤다. 회전문(廻轉門, 국보 277호)이 유명하다.

谷樹悄生響　골짜기 나무에서 소리가 울리고
鐘鳴客到時　범종이 울리니 손님 오는 때로다.
偶來流水遠　우연히 흐르는 물처럼 멀리 왔더니
此意古人知　이 마음을 옛 사람은 알리로다.
樓靜雲依榻　누대는 고요해 구름이 자리를 둘렀고
山虛月倒池　산은 비어 달빛이 못에 어렸다.
新霜楓葉淨　새로 서리 맞은 단풍잎이 맑으니
一一寫吾詩　한 잎 한 잎 내 시를 써야겠구나.

작품은『진암집(晉菴集)』권1에 실려 있다. 이천보(李天輔, 1698-1761)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의숙(宜叔)이며, 호는 진암(晉菴)이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이조와 병조 판서를 거쳐 1752년 우의정이 되고 같은 해 좌의정을 거쳐 1754년 영의정에 승진된 후 돈령부영사(敦寧府領事)로 전임했다. 문집에『진암집(晉菴集)』이 있다.

산사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작품이다. 왜 굳이 먼 길을 꺼리지 않고 절간을 찾느냐면서 시인은 자문하고, 그 심정을 옛 사람은 알 것이라면서 자답한다. 즉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세계라는 뜻이다. 자연의 물상들은 하나하나가 곧 시의 소재이자 제재가 된다고 시인은 말한다. 그리고 산사는 인위의 건물이 아닌 자연의 일부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범종 소리, 독경 소리, 풍경 소리, 목탁 치는 소리 등등. 이런 것은 자연을 닮아 있기에 가장 진리에 근접해 있다. 인공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라 불편하다. 몸에 딱 맞는 옷보다는 약간 헐거운 옷이 움직이기에 좋듯이 투박하지만 진솔한 생각이며 행동들이 인간의 성정에 더 친숙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인이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쓰고 싶은 시 역시 바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인사(海印寺)를 노래한 작품이다. 제목은 〈밤에 해인사에서 자면서〔夜宿海印寺〕〉이다. 해인사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伽倻面) 가야산 남서쪽에 있는 사찰이다. 신라 애장왕(哀莊王) 때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우두산(牛頭山, 가야산)에 초당(草堂)을 지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들이 선정(禪定)에 들었을 때 마침 애장왕비가 등창이 났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자, 이에 감동한 왕은 가야산에 와서 원당(願堂)을 짓고 정사(政事)를 돌보며 해인사의 창건에 착수하게 했다. 918년 고려를 건국한 태조는 당시의 주지 희랑(希郎)이 후백제의 견훤을 뿌리치고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이 절을 고려의 국찰(國刹)로 삼아 해동 제일의 도량(道場)이 되게 했다.

禪寮遂窈窕　선방에는 그윽한 기운이 감도니

人客自團圓　주인이나 손님이나 절로 단란하구나.
落木山多月　낙엽 지는 산에는 달빛이 많고
寒鐘塔在煙　종소리 찬 탑에는 안개가 끼었네.
四溟碑已老　사명당의 비석도 이끼가 자욱하고
中土鉢猶傳　중국서 온 의발도 여전히 전하네.
斗起踰城念　문득 성을 넘으려는 생각이 일어나니
經聲境悄然　불경 읽는 소리에 사방이 고즈넉하구나.

작품은『간옹집(艮翁集)』권1에 실려 있다. 이헌경(李獻慶, 1719-1791)은 조선 후기 학자로, 자는 몽서(夢瑞)고, 호는 간옹(艮翁)이며, 본관은 전주다. 1743년 진사로 정시문과에 급제, 1751년 정언을 지냈고 1763년 사간원사간과 사헌부집의 등을 거쳐 1766년 홍문관수찬이 되었다. 1777년 동부승지에 발탁되었다. 벼슬보다 문학에 힘을 기울여 많은 글을 남겼다. 문집에『간옹집』이 있다.

민족과 왕조가 맞이한 수난을 부처의 가피력으로 이겨내고자 발원하여 만들어진 위대한 인류의 유산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이 보관된 절이 바로 해인사다. 조선조 내내 불가의 물건이니 차라리 일본에 건네주자는 선비들의 못난 생각을 견디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속세의 이윤을 보장하는 하찮은 유가 경전은 신주처럼 모시면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물건은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들의 오만과 독선을 떨치기 어렵다. 물론 이 작품에는 그런 내력이며 의도가 담겨있지는 않다. 오히려 자신도 옛날 부처님처럼 유성출가(踰城出家)하고픈 심정을 담았다. 손님과 주인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유불(儒佛)의 차별도 없는 공간을 시인은 노래한다. 세상의 이치를 대립에서 찾는 유가의 눈에 원융무애(圓融無礙)를 희구하는 불교의 강령이 어떻게 영혼을 사로잡았는지 이 시를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본 장에서는 유서 깊은 사찰을 노래한 유가 사대부들의 한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는 보기지만, 충분히 이런 유의 작품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그 밖의 많은

작품들이 우리의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4. 불교자료의 전산화 문제

불가에 의해 쓰여진 문헌이나 자료는 오랜 동안의 노력으로 그 수집이나 정리가 어느 정도 완결된 느낌을 준다. 〈한국불교전서〉가 대표적인 사례고, 이밖에도 사지(寺誌)나 승전(僧傳)도 상당수 수집되어 영인화(影印化) 작업이 끝난 상태다.

이와 비교할 때 사대부 문집 속의 자료는 일천하기 그지없다. 문집 정리 자체가 완비되지 않았으니, 불교 자료 수집 정리가 정비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지만, 불교계에서 이 방면의 노력이나 관심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기왕에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된 문집 자료들을 바탕으로 1차적인 수집 정리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하고 싶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 규장각 등에 상당량의 문집들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으니, 이들을 살펴 필요한 자료를 우선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각 지방에 산재한 서원(書院)에 소장된 문집이나 종가(宗家)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집, 개인 소장 문집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목록만이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우리는 사대부 문집 속에 얼마만큼의 불교 자료들이 수장되어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분량으로 따지면 전체의 20%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니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자료는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즘의 연구 추세가 자료가 없어서 발굴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자료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한 탐색으로 시야를 옮겨가고 있는 만큼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작업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자료의 수집 정리가 이런 형편이니 전산화 문제는 더욱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자료집에 수록된 문집은 주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전 350권)과 그 밖의 일부 문집이 주종을 이룬다. 〈문집총간〉의 경우 대략 280권까지는 민추 사이트에 원문이 전산화되어 있어 수집하여 정리하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70여 권에 실린 자료들은 찾아 입력하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모되었다. 또 영인 상태에 따라 글자 판독이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어 정확도에 대한 기대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문집 속에서 자료를 전산화하는 일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시간과 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제임에 분명하다.

자료의 전산화가 단순이 입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찾기 기능을 완비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을 때 진정으로 전산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자료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기록문자의 한계 때문에 자료의 활용을 막는 애로가 사라졌을 때 전산화 과제는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발표에서도 거론되었지만, 불가에서 저술된 문헌들은 완역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내적인 세밀한 탐색도 절실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본 전망을 이해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유가 사대부 문집 속의 불교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전산화여 궁극적으로 역주하는 일은 우리 불교계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5. 불교 자료 전산화의 효과

마지막으로 사대부 문집 속의 불교 관련 자료들이 수집 정되어 전산화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그간 막연하게 논의되던 유불교섭의 실체를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특정 시대나 몇몇 문인들의 사례를 들어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를 자료가 완비됨으로써 공시적, 통시적, 지역적 등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특히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에 실려 있는 불가의 유가와의 교류 자료들과 대비하면서 살핀다면 더욱 가치는 빛날 것이다.

둘째, 유가 문집에 실려 있는 자료들은 우리의 유서 깊은 고찰(古刹)들이 시대마다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재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역사 속에 잊혀진 고승(高僧)들의 활동을 재현하는 구실을 하리라 생각한다. 문집 속에 나오는 많은 승려들의 법명(法名)이나 활동상은 비록 단편적인 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불교사의 사라진 조각을 맞추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셋째, 시대와 사람을 달리하면서 꾸준히 이루어진, 명찰(名刹)에 대한 기록은 새로운 불교문화사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강원도 양양의 대찰인 낙산사(洛山寺)에 관한 시문만 하더라도 조사된 것만 1백편을 넘어선다. 이것은 비단 낙산사에만 그치지 않고 오늘날 대표적인 우리 사찰들에 관한 기록들이 문집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런 자료들을 사찰별로 정리하면 우리 시대의 사지(寺誌)를 새로 쓰는 효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넷째 문인들의 사찰기행시문이나 승려와의 교유시문들은 사대부 문인들이 가졌던 자연에 대한 미학적 관점과 인생관, 인간관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미학사의 연구가 주로 유가 자료에 바탕으로 두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여진 불교문화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들을 불가 승려들의 그것과 함께 살필 때 우리 고전시대 미학사의 한 장을 새로 쓰는 단초를 열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 자료집을 통해 우리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적 사고와 가치관은 단지 현재형으로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지성사와 함께 그 맥이 닿아있음을 확인하여 연면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불교 유산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 부여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밖에도 많은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불교학자들이 배출될 것이고, 새로운 연구 과제도 부각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옛 사람들의 여행 노정에서 사찰의 지리학적 의미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시 불교의 사회적 지위나 위상 등도 재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료를 활용하기에 따라 우리 불교 유산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세대와 계층, 지역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로 융화할 수 있는 원천이 이들 자료 속에 숨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키워드(Keyword)

불교, 유교, 사대부, 한시, 한문, 불교한문학, 사찰제영시
Buddhism, Confucianism, Gentry〔士大夫〕, Chinese poem〔漢詩〕, Chinese writing〔漢文〕, Chinese literature on Buddhism, Poetry described on Temple